

放隱 成樂熏의 한학과 한국 당쟁사 서술

이영호 *

-
1. 방은의 생애와 저술
 2. 방은의 한학과 사승
 3. 『한국당쟁사』의 형식적 특징
 4. 『한국당쟁사』의 내용적 특징
 5. 『한국당쟁사』의 당쟁관

【부록】 「華嚴宗主映湖堂大宗師淨屠碑銘并序」

■ 국문요약

한국의 근대와 전근대의 접점에서, 전통 한학자의 일부는 학문의 제도권으로 들어와 한학을 근대적 학문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중, 대표적 한학자가 바로 성낙훈이다.

성낙훈은 유교와 불교 전적의 번역과 한학 교육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유불 양쪽에서 많은 번역서를 내기도 하였지만,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거나 사적으로 한문강습을 통하여 많은 한국학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한편 학문의 영역에서도 한국 당쟁 서술에서 폭넓은 전거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사관을 보여주었다. 기왕의 당쟁서들이 당파적 견해에 치중하여 시비를 가리는 데 비하여, 성낙훈은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군주에게로 그 책임의 소재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후일 그의 유학 관련 저술을 통해 이 부분이 좀 더 보완

* 성균관대학교 교수 / E-mail: lyh6896@skku.edu

이 된다면, 우리는 한국학의 또 다른 귀중한 자원을 발굴하는 셈이 될 것이다.

주제어 : 한학,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당쟁사, 한국학

1. 방은의 생애와 저술

한국의 근대와 전근대의 접점에서, 학문의 경우 보존과 변환이 동시에 일어났다. 한자와 한글이 착종하면서 한글로 이동하는 이 접점의 시기에,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인들이 그 보존과 변환의 중심에서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세상과 담을 쌓고 한학으로 몰입하기도 하였지만, 또 일부는 학문의 제도권으로 들어와 한학을 근대적 학문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동일한 한학적 기반을 가졌지만, 전자는 보존을 후자는 변환을 선택한 셈이다. 후자의 학자들 중 대표적 경우로 정인보, 김창숙, 임창순, 이가원, 이우성, 성낙훈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그 학문과 역할에 비해 비교적 조명이 덜 된 이가, 바로 성낙훈이다.

成樂熏은 1911년 1월1일,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부봉리 삼밭 마을에서 부친 成晩永과 모친 載寧 李氏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본관 昌寧이고, 호적명은 庚祚이며, 자는 子沐, 호는 放隱이다.

돌이 지나기도 전에 모친을 여의고 조모에 의해 양육되었는데, 3세에 (1913)에 서당에 입학하고, 5세에 서당 백일장에 장원하여 신동이란 호칭을 들었다. 15세(1925)에 대구 교남학교(현재 대륜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이듬해 중퇴하고 만주, 일본 등으로 외유하였다. 18세(1928)에 경주 안씨 春和 공의 차녀와 결혼하였으나, 이듬해 금강산에 입산하여 方漢岩 스님의 문하에서 불경을 공부하였다고 한다. 20세(1930)에 신간회에 가입하여 민족운동을 하였는데, 이 무렵 위당 정인보를 만났

다. 25세(1935)에 사찰의 강원에서 불경을 강론할 정도로 한문과 불교에 밝았다. 37세(1947)에 서울대 문리대 조교(중문학),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동양철학) 강사를 역임하고, 42세(1952) 이후, 전북대 사학과, 경북대 철학과,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58세(1968)에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전임편집위원, 동국역경원 번역 및 교열위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조선왕조실록 국역위원, 가정의례준칙심의위원 등을 겸직하였다. 59세(1969) 3월 1일 성균관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동방고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제자를 양성하였다. 64세(1974)에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67세(1977) 1월 1일에 작고하셨다. 출생일과 작고일이 같으니, 태어나신 날에 돌아가신 것이다. 후손으로는 5남 1녀를 두었다.¹⁾

저작으로 한국의 당쟁사와 유학사에 관한 저술 및 노자, 맹자, 순자, 정약용, 서유구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 이 글들은 모두 『(방은 성낙훈선생 문충) 한국사상논고』(동화출판공사, 1979)에 실려 있다. 이외에도 『연려실기술』, 『퇴계집』, 『율곡집』, 『선가귀감』 등 유학과 불교의 전적수집여 종을 번역하였다. 2008년에 그의 유문과 후학들의 논고를 모은 『(放隱 成樂熏 先生 三十週忌追慕文集) 韓國學의 人文學』(경인문화사, 2008)이 발간되었다. 방은 선생의 대표적 글은 조선당쟁사를 정리한 『한국당쟁사』²⁾와 한국유학을 정리한 『한국유교사』와 『한국유교사상사』³⁾인데, 모두 『한국사상논고』에 실려 있다.

1) 이상 방은 선생의 略史는 「放隱 成樂熏 先生 略傳」(『韓國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2008)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2) 이 글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 『한국문화사대계』 2(정치경제사), 1966에 실려 있다. 이후 『한국당쟁사』는 이영호, 성장훈에 의하여 교주본(2021)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3) 이 두 편의 글은 모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 『한국문화사대계』 6(종교철학사), 1970에 실려 있다.

2. 방은의 한학과 사승

방은 성낙훈을 기억하는 이들의 뇌리에 가장 많이 남은 것은 그의 애주와 경이로운 한문 실력이었다. 그 기억의 단상들을 들여다보면, 술과 한문을 중심으로 방은 선생의 삶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먼저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의 초창기 면모를 기술한 이계황 회장(전통문화연구회)의 회고담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1 광화문 네거리 현 고보문고 빌딩 뒤편 첫째 골목길의 이름도 없는 묵로주점에서 放隱 成樂熏 선생과 시인 月下 金達鎭 선생이 소주잔을 건네며 하셨던, “도라무통(드럼통)이라도 치마만 두르면 됐지.”는 진짜 술꾼(?)들의 농담이었다. 당시 두 분은 예순에 가깝고 나는 서른도 안 됐지만, 방은 선생은 술의 淸濁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강의 쉬는 시간에도 한잔하실 정도로 술을 매우 즐기시는 분이였다. 이는 민족문화추진회가 발족한 후 성락훈 선생님을 모실 때에도 가끔 있는 일이었는데 성품이 소탈을 넘어 해탈한 분 같았다.

2 방은 선생은 사업 초기부터 번역을 주도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 당시 방은 선생이 주석을 口述하면 노영수 편수담당이 적어놓고 확인했는데, 二十五史의 자료를 찾아 대조하면 모두 정확한 것이었다. 少時에 신동이라 불리었다는 이야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당시 한학대가들은 四書三經과 詩文을 줄줄 외우는 ‘워킹 디셔너리(Walking Dictionary)’라 할 수 있는 분들이었다. 방은 선생의 회갑연이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개최될 때, 두계 선생이 축사 중에 “회갑잔치에 말이 좀 지나치지만 방은은 한문귀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두계도 한문에는 방은을 선생으로 대접한 것 같았다.⁴⁾

4) 이계황(2011) 참조.

1의 회고를 보면, 방은이 얼마나 애주가였는지를 알 수 있다. 色보다 酒가 더 우선이었으며,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수업시간에도 한잔 하시고 들어오실 정도였던 것이다. 이성무 교수도 방은의 이 음주 풍경을 유사하게 회고하고 있다. “선생님은 술을 매우 즐기셨다. 강의하기 전에는 반드시 술을 드셔 거나하게 취해야만 강의를 잘 된다고 한다. 술을 마시지 않고 오신 날은 강의하다 말고 나가서 소주를 들고 오시곤 했다. 건강에 나쁘니 술을 드시지 마시라고 하면 ‘나는 술 안 먹고 10년을 더 사느니 술 먹고 1년만 살린다’고 하셨다.”⁵⁾ 이성무 교수의 회고를 보면, 방은에게 술은 색보다도 심지어 목숨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2의 회고는 방은의 한문 실력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로 20세기 초엽에도 한문에 있어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는 학자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북경대 초기 교수였던 劉師培(1884~1919)의 경우, 십삼경을 주석까지 통째로 암송하였다고 한다. 위의 기록을 보면, 중국의 유사배 보다 조금 후배격인 방은의 경우는 유교의 경전은 물론 25사도 거의 암송하였다고 하니, 두계 이병도의 ‘한문 귀신’이라는 칭찬이 허언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鷺山 李殷相(1903~1982)은 방은이 돌아가신 날에 문상을 와서, “우리나라 漢文學의 國寶가 돌아가셨다.”⁶⁾고까지 하였다.

한문귀신, 한문학의 국보라는 별칭은 방은의 한문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 별칭이 선배이자 당대 학계를 이끌었던 이병도, 이은상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그러면 한문학의 국보였던 방은은 그 뛰어난 한문 실력을 어디에 쏟

5) 이성무(2008), 31~32면.

6) 유풍연(2008), 27~28면.

았는가? 그 첫 번째는 후진 양성이었는데, 임형택 선생의 회고담에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오늘날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이 있기까지 그 성립과정에 실제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방은 선생으로 알고 있다. “한문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은 선생님의 지론이었거니와, 고전 국역의 필요성을 늘 역설하였다. 그리고 요로의 누구누구에게 간청하여 민족문화추진회를 설립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종종 들었다. 민족문화추진회의 기록을 보면 초기의 위원, 이사 등 명단에 학계 및 정계의 유명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한학자로는 유일하게 방은 선생의 이름이 보일 뿐이다. ……우전 신희열 선생과 우인 조규철 선생이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셨는데 이분들 또한 방은 선생이 견인한 줄로 알고 있다. 국역연수원이 설립되자 이 세분이 나란히 교수로 취임하였다.⁷⁾

근대로 접어들면서 주류 언어는 한문에서 한글로 옮겨 갔다. 이와 더불어 한문은 점차 소수의 지식인만이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적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이가 없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민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을 살면서도 전근대 문화의 정수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의 문자인 한문을 습득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방은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듯이 10년의 세월이 오롯하게 투자되어야만 한문을 읽을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⁸⁾ 10년의 시간을 투자해도 그 한문의 독해능력으로 현실을 살

7) 임형택(2008), 71면.

8) 유풍연(2008), 24면.

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록하진 않다. 때문에 이러한 한문은 어떤 소명의 식 내지 학문적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방은은 이런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한문을 배우는 후학을 일컬어 ‘한문종자’라고 한 것이다.

방은이 민족문화추진회의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현 한국고전번역원의 모태가 되는 민족문화추진회는 바로 ‘한문종자’의 양성과 더불어 한문고전의 국역을 핵심으로 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방은은 이렇게 공적인 활동뿐 아니라, 사적으로도 ‘한문종자’를 양성하는 후진교육에 몰두하였다. 동방고전연구원을 만들어서 홀로 한문을 가르쳤다. 이 때 방은의 문하에서 현재 한국 한문학의 대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문학의 李東歡, 林熒澤, 柳豐淵, 사학의 李成茂, 鄭求福, 박용운, 철학의 金容傑 등이 바로 방은에게서 한문을 배운 학자들이다.

이처럼 근대한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방은의 삶은 크게, 20~30대의 불교 공부 매진, 40~50대의 교수생활, 60대 이후의 교수 사직 후 활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방은의 삶에 대하여 정리된 기록이 없기에, 간략한 연보를 통해 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다. 그의 불교 공부의 이력(사승관계)과 교수 경력에서 말이다.

방은의 불교에 대한 몰두는 그의 손녀인 성숙은 화가의 회고에 잘 드러나 있다. 성숙은 화가는 필자에게 보낸 할아버지 방은에 대한 회고에서, “할아버지는 불심이 돈독하셨고 불교 경전에 관한 학문적 경지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큰 스님이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아무 말씀도 없이 특하면 집을 나가 전국 유명 사찰에 체류하면서 여러 고승들과 교류를 하는 행적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스님들이 수시로 저희 집을 방문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에게는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집을 나가 금강산 여러 사찰에서 수년간 불교 경전 공부를 하여 가족들이 애

타게 행방을 수소문하여 찾는 경우도 있었다고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放隱 成樂熏 先生 略傳」을 보면, 방은은 19세(1929년)에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方漢岩 스님의 문하에서 불경을 공부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1929년 1월 5일, 朝鮮佛敎禪敎兩宗에서 일곱 분의 敎正-金幻應, 徐海曇, 方漢岩, 金擎雲, 朴漢永, 李龍虛, 金東宣-이 선출된다.⁹⁾ 그런데 방한암은 이 시기를 전후로 약 20여년 이상을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게 된다. 즉 1929년을 전후로 방한암은 금강산을 간 적도 속가제자들을 가르친 이력도 없다. 그런데 「放隱 成樂熏 先生 略傳」에는 1929년에 방은이 금강산으로 가서 방한암의 문하에서 불교를 공부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후 방은의 이력에 대하여 언급하는 글에서는 방은이 방한암에게 불경을 배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손녀인 성숙은 화가의 회고와 방은의 불교에 대한 깊은 조예와 후일 불교계에서의 활동을 보면, 분명 불교의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런데 방은과 방한암의 사제관계는 「放隱 成樂熏 先生 略傳」 외에 아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 의심나는 것은 방한암의 당시 이력에서 보듯이 방은이 가르침을 받았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서 방은 자신이 당시 선지식의 제자라고 자임한 자료가 있다. 그 기록은 바로 방은이 쓴 「華嚴宗主映湖堂大宗師浮屠碑銘并序」이다. 여기 映湖堂大宗師는 앞서 거론한 1929년 1월 5일, 조선불교선교양종에서 뽑힌 7명의 교정 중 한 분인, 朴漢永이다. 박한영(1870~1948, 호는 映湖 또는 石顛)은 방한암 스님과 더불어 조계종의 초석을 세우고 한국 전통불교의 근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승려이다.

9) 염중섭(2020), 64면.

영호 박한영 스님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두 번에 걸쳐 종정을 역임한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으며, 1926년 이래 20여 년간 불교전문강원에서 스님뿐 아니라 재가 불자들에게도 불교 교육을 시행하여, 조선 불교 후학 양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분이다. 특히 스님은 이견방, 이상재, 오세창, 최남선, 정인보, 홍명희, 신석정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 과도 교유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방은이 어느 시기에 영호 박한영의 가르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영호 박한영이 1926년 이래 스님뿐 아니라 속인들에게도 불교 교육을 시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시기를 전후해서 방은이 가르침을 받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마침 방은이 불교 공부를 했다는 시점과 매우 가깝다.

영호 스님의 열반 후, 1965년에 방은은 영호 스님을 기리는 「華嚴宗主映湖堂大宗師浮屠碑銘并序」를 지었다.¹⁰⁾ 이 비명은 그해 12월 8일, 고창 선운사 비석에 새겨졌다. 그 비석의 말미에서 방은은 “대사가 입적한 뒤 18년이 지나, 여러 문인들이 도솔산 선운사에 부도를 세우려 하면서 나에게 銘을 짓기를 명하니, 나는 스승의 화엄종 문하생이었기에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명을 쓰노라”〔師寂後十八年，諸門人樹浮屠於兜率山禪雲寺，命樂熏爲銘。樂熏，吾師之華嚴門生也，辭不獲，謹爲之銘。〕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成均館大學校 教授 及 門生 昌寧 成樂熏 謹撰’이라고 부기하였다. 여기서 방은은 영호를 가리켜 ‘나의 스승〔吾師〕’이라 하였고, 자신을 ‘문하생〔門生〕’이라고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다. 또한 「영호당 정호대종사의 범택과 전등」의 ‘속가제자 및 교우’에 방은은 이병기, 신석정, 조지훈, 이광수와 더불어 나란히 등재되어 있다.¹¹⁾ 때문에

10) 이 비명의 전문은 종걸, 혜봉 공저(2016), 819~822면에 실려 있다.

11) 종걸, 혜봉 공저, 앞의 책, 833면.

우리는 여기서 방은의 불교쪽 사승에서 방한암과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도 없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박한영과의 사제간 관계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은의 불교공부의 이력은 후일 그로 하여금 전문 불경 번역에 들어서게 하여, 한때 동국역경원의 번역 및 교열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아는 이가 거의 없지만, 방은은 동국역경원의 전신인 護國譯經院에서 불교의 근대화에 힘을 쏟기도 하였다.

해방이 되자마자 그 해(1945년) 12월 17일에 호국역경원이 개원하였다. 이때 불교계가 아닌 속가에서는 당대 최고의 문인 혹은 한학자였던 오상순, 성낙훈, 변영만 등이 참가하였다. 이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약 5년 정도 호국역경원은 불전번역과 불교대중화를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¹²⁾ 이 시기 방은은 호국역경원에서 불경 번역뿐 아니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부처의 전기를 집필하였다. 방은이 쓴 부처의 전기는 단기4280년(1947년)에 『佛陀傳』이라는 명칭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은의 『불타전』이 얼마나 대중을 향해 다가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 방은은 『불타전』에서 부처가 출가하기 전날 밤과 새벽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十七. 잠자는 궁녀들

야수다라를 잠들게한뒤에 태자는 잠자는 궁녀들을 도라보았다. 옷이 구겨지고 살이 드러나고 침을 흘리고 이를 갈고 잠꼬대도하는 그들의 몸뚱이는 모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만 보였다. 피 대소변 臟腑를 가 죽주머니로 싸놓은것이였다. 궁녀들은 송장으로 보이고 궁전은 무덤같이 보였다.

12) 불교신문 3207호/2016년 6월8일자 기사 참조.

十八, 離別

태자는 더 참을수도 기다릴수도 없었다.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와서 御者 車篋을 깨워 사랑하는 흰말(白馬名韃陟)에 안장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차익은 놀래여 울면서

「깊은 밤에 놀러갈대도 아니오며 戰爭이 시작되는것도 아니온데 말은 몰아 무엇하시렵니까」

태자는

「차익아 큰 전쟁이 시작된다. 늙은 병 죽음 煩惱가 나를 습격하는줄 모르느냐. 급히 싸워야 한다. 주저할 때가 아니다. 말을 몰아라」

하였다.¹³⁾

부처가 출가하기 전날 밤, 부처가 사람들이 몰두하는 이성의 육체에 환멸을 느끼는 장면과 종자에게 출가의 변을 토로하는 대목에서 그 묘사와 언설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이른바 소설체로써 부처의 일생을 서술한 것이다. 여기에는 학술적 각주도 어떠한 참고문헌도 없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거의 소설에 가깝다. 그러나 이 책은 방은이 지은 여러 저서를 참고하였을 때, 단순히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마도 지금 추적할 수는 없지만 부처의 일생에 관한 많은 한문문헌을 자기 나름으로 소화하여 이를 소설체로 엮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후술하는 방은의 『한국당쟁사』 서술에 보이는 태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방은의 20~30대의 불교 공부 매진 시절의 사승관계에 이처럼 의문이 있다면, 그의 40~50대의 교수생활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바로 그의 교수 경력이다.

방은은 이처럼 재야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듯이 여러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들을 기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의 교수 경력을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띄는데 바로 시기를 달리

13) 成樂熏(1947), 17~18면.

해서 성균관대 교수를 두 번 역임한 것이다.¹⁴⁾ 처음에는 강사를 하다가 나중에 교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수를 각기 두 번 역임한 것이었다. 혹 반정부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한 번 해임되었다가 다시 재임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확인하지 못하다가 曁史 李佑成(1925~2017)의 발언으로 그 연유를 알게 되었다. 다음은 이우성 선생의 회고이다.

방은 선생은 성균관대학 교수직에 있다가 얼마 뒤 그만두었지. 나중에 잠깐 다시 복직을 했다가 또 안 나오고 그랬어. 학생들 시험을 가지고, 채점도 안 하고, 채점표도 잘 안내고 그랬어요. 성적표를 낸 적도 없어. 자기도 학교에 안 나오고 해서, 학교에서 그만 해직을 시켰어요. 두 번째 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니깐, 두 번 다 그렇게 해직이 되었어.¹⁵⁾

나(이우성-필자)는 종종 심산선생을 뵈러 가서는, “방은을 성균관대학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지금 그만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여러 번 권유를 했지.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왔는데, 또 강의가 불성실하고, 뭐 영 채점표도 안내고 하니, 그만 퇴출이 되어 버렸어. 월급은 늘 타가면서 강의는 잘 안 나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나. 어쨌, 그래. 나중에 고전 번역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되어가지고서, 거기서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돌아갈 때까지 일을 성실하게 잘했지요.¹⁶⁾

이상 이우성 선생의 회고에서 우리는 방은이 어떻게 성균관대학교 교

14) 방은은 42세(1952)에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조교수를 하다가, 1년 뒤인 43세(1953)에 전북대학교 사학과 전임강사가 되었다. 다시 45세(1955)에 경북대 철학과 조교수 임용되었다. 그리고 54세(1964)에 다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가 되었다가, 59세(1969)에 그만 두었다.(방은기념사업회 편(1979), 319~322면 참조)

15) 허권수(2012), 277면.

16) 허권수, 앞의 글, 292~293면.

수에 두 번 취임하였고, 왜 그만두었는지를 알 수 있다. 애초 방은 그 뛰어난 한문 실력으로 40대 초반에 성균관대 교수가 되었으나, 학교에 잘 나오지도 않고 시험이라든가 채점 또한 거의 하지 않아서 해직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우성 선생이 당시 총장이었던 심산 선생에게 청을 넣어 다시 성균관대 교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 하지는 못하고 그만두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교수 생활이었는데, 당시에도 아마 방은 선생의 이러한 교수 활동은 특이하였던 것 같다. 여기에는 범인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방은 선생의 자유로운 면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방은 선생의 셋째 아드님은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를 한 적이 있다.¹⁷⁾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의 특징이랄까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생각난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아버님의 생애는 가정은 아예 안중에도 없으셨다.

그 두 번째는 학문과 제자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 세 번째는 철저한 자유인이셨다.

아들의 회고에 의하면, 방은 선생은 철저한 자유인이었다. 거기에는 가정도 안중에 없었으니, 학교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대학의 교수가 비록 사회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지만, 오고감에 걸림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방은 선생에게 한 가지 삶의 초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한문종자'를 기르는 것으로서의 학문과 제자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그 가족들은 보살핌에서 소외되었다. 방은의 손녀인 성숙은 화가는 할아버님에 대하여,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할아버지를 회고하면

17) 성유경(2008), 74~75면.

한마디로 낙제점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꾸려 나아가는 경제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평생 헌신하신 분야는 오로지 하고 싶은 학문 연구에 매진 하셨습니다.”라고 회고하였다. 방은에게 그야말로 가정 경제는 관심 밖이었으니, 그 집안의 살림살이의 팍팍함은 보지 않아도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회한을 그 아드님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벌써 고인이 되신지 어언 30년, 되돌아보면 제대로 자식으로 써는 아버님의 가르침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서운하고 아쉬운 회한이 한 둘이 아니지만, 시대가 그랬고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였으니 어찌하랴. 그 시대가 우리 아버님에게 요구한 바가 있고, 학문이 우리 아버님을 더욱 필요로 하였으니 우리 자식이 아버님을 양보하는 수밖에18)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쉬운 회한이 들지만 시대가 그리고 학문이 아버지를 필요로 하였기에 우리 자식이 아버지를 양보한다는 그 말에, 미안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다가온다. 본인들은 원치 않았겠지만, 그 가족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문종자’는 개화하였고, 그 열매를 성대하게 맺을 수 있었다. 현재 한문학 연구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임형택 선생의 회고에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그 시절(방은 선생에게 한문을 배우던 시기)에 김시습의 인간과 사상에 무척 매력을 느껴서 그가 남긴 소설 『금오신화』를 그의 철학적

18) 성유경, 앞의 글, 76면.

논리와 연계해서 해석한 논문을 썼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이지만 나는 누구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관견이 있다는 자만심을 마음속에 은근히 가졌던 같다. 그런데 이 논문에 대해 내린 선생님의 평어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小所見, 多所怪’ 즉 ‘본 것이 적으니 괴이한 것도 많다’는 의미이다. 이런 지적을 받자 나는 일시 풀이 죽기도 하였으나 그 여섯 글자를 학문하는 나 자신 두고두고 경구로서 가슴에 새겨놓고 있다.¹⁹⁾

이처럼 ‘한문중자’를 양성하는 사적, 공적인 교육에 방은 자신의 한문 실력을 쏟았다. 한편 방은의 한문 실력이 두 번째로 발휘된 분야는 바로 저술과 국역이다. 방은은 민족문화추진회 초기에 『연려실기술』 번역을 필두로 많은 국역서를 남겼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학과 사상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바로 한국의 당쟁사와 유학사였다. 이처럼 많은 국역과 저서 가운데서 방은은 자신의 대표작으로 『한국당쟁사』를 꼽았다. 아래는 임형택 선생의 회상이다.

선생님은 글을 강해하다가는 옛날이야기며, 학문에 관련한 말로 넘나 들기를 좋아하셨다. 자신에 대한 자부는 대단하셨는데 자기의 저술로선 『한국당쟁사』를 가장 역작으로 꼽으셨다. 당쟁사라면 자신이 제일 책임자라는 생각을 토로한 바 있다. 왜냐하면 당쟁사의 집필자는 첫째로 가문으로는 당파에 관여되지 않아야 되고, 둘째로 당쟁의 생리와 내막을 속속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서북사람들처럼 중앙 정계에서 멀리 떨어진 쪽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당쟁에 깊이 관련된 영남인이면서도 한미한 출신이라 당쟁에 관여된 문벌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말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신 것이다.²⁰⁾

19) 임형택, 앞의 글, 63~64면.

20) 임형택, 앞의 글, 64면.

위의 회고를 보면, 방은은 자신이 세상에 내놓은 저역서 가운데 대표작으로 『한국당쟁사』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방은 스스로 당쟁에 깊이 관련된 영남인이면서도 당쟁에 관여된 문벌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쟁사 집필에 적극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곧 기왕의 당쟁사는 어느 정도 당파적 견해에 의해 서술되는 데 비해, 자신이 집필한 당쟁사는 당파적 견해가 없는 공평무사한 저술이라는 자부일 것이다.

3. 『한국당쟁사』의 형식적 특징

일찍이 이우성 선생은 방은의 저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몇 개의 논문은 상당히 괜찮은 것이 있어. 다만 그저 연구방법과 서술방식이 다소 좀 현대적인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논지가 상당히 갖추어진 박식한 글이었지.²¹⁾

이우성 선생의 방은의 저술에 관한 평가의 핵심은 연구방법과 서술방식이 현대적이지는 않지만, 논지가 잘 갖추어진 박식한 글이라는 것이다. 방은의 『한국당쟁사』는 실로 이우성 선생의 이러한 평가에 부합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그 서술방식에서 보면, 한국어로 쓰인 연구서임에도 불구하고 각주가 전혀 없다. 당쟁사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각주도 없을 뿐더러, 각종 전적에서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문 인용각주가 전혀 없기에 이 책을 보아서도 도대체 어디에서 인용한 내용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니 실로 전근대적 서술방식이라 할

21) 허권수, 앞의 글, 294면.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의 편폭을 보면 매우 광대하며 또한 자세하게 인용하고 있으니, 이는 또한 박식한 글에 해당될 것이다.

방은의 이러한 글쓰기는 현대의 논문 혹은 연구서의 체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재야학자가 아니라 당시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가운데 대학에서 발간하는 연구총서에 실리는 『한국당쟁사』를 집필하면서, 왜 이런 글쓰기를 택하였는지 의구심을 일으키게 한다. 이 점에 대하여 박용운 교수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방은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역사와 관련된 선생님의 저술로 1960년대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출간한 『한국문화사대계』의 정치편 가운데 당쟁사를 쓴 것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거를 비롯한 註가 전혀 붙어있지 않다. 평소에 이점을 이상하게 생각해 온 나는 어느 기회에 그 연유를 선생님에게 여쭙어 보았다. 그랬더니 대답이 '머리에 다 들어 있는데 굳이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셨다. 지금 헤아려 봐도 선생님다운 답변이었다고 생각된다.²²⁾

방은의 『한국당쟁사』의 교주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방은은 자신의 무한한 지식 혹은 암기에 의존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다. 때문에 전거를 하나하나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二十五史도 암기할 정도의 박람강기함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그냥 한국의 당쟁사를 써 내려갔던 것 같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인용의 전거는 명확한데 비하여, 인용의 내용은 원전을 그대로 옮기는 형태는 아니었다. 이는 실상 방은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전거와 전거에 해당되는 원전의 인용이 일체 없기에 학술서라고 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 그렇다고 완전한 대중 교양서라고 보기에는 비록 제시는 하지 않

22) 박용운(2008), 44면.

왔지만 전거가 분명하고 나름의 논리적 맥락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당쟁사』는 한문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문장 또한 고어투가 많다.

이에 『한국당쟁사』를 교주함에 있어서 가장 공력을 들여야 하는 부분은 전거를 찾고 그 전거에 해당되는 원문을 각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인이 읽기에 부담 없도록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할 것이며, 문장 또한 현대어투로 가급적 원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즉 교주본 『한국당쟁사』는 전거 확인 및 각주 추가, 한글 한자 병기, 저본 문장 현대화 등 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그런데 전거를 찾아 그 원문을 각주로 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다. 『송자대전』, 『명재유고』 같은 각종 문집과 『연려실기술』, 『동소만록』, 『당의통략』, 『조선왕조실록』 등 수많은 전적에서 인용하였기에 그 번역문만 가지고서 원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방은은 史書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지 않고 變改하여 실었기에, 실로 전거를 찾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다.²³⁾ 그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李滉이 시골에서 入京하여 幾日後에 領相 李浚慶에게 인사하러 갔더니,

李浚慶은

入京한 지 여러 날 뒤에야 나를 보러 왔는가.

하였다.

士友들이 찾아오는 이가 많아서 늦게야 오게 되었습니다.

전일에 己卯의 人士들이 서로 追從하기를 즐기더니 마침내 禍를 당하던걸.

23)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난 뒤, 이를 보완하는 작업의 소산으로 이영호, 성창훈의 교주본 『한국당쟁사』(2021)가 출판된 것이다.

趙光祖의 소위 「朝廷에 友道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었다.²⁴⁾

위의 『한국당쟁사』에서 인용한 이황과 이준경의 대답은 『선조수정실록』에 실려 있는 이준경의 줄기에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다. 아래는 『선조수정실록』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이다.

李滉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사대부가 아침저녁으로 그의 문전을 찾아가니, 이황은 한결같이 모두 예로 접대하였다. 최후에 준경을 찾아가 인사하자 준경이 말하기를, “도성에 들어오신 지 오래되었는데 어찌 이제야 찾아오십니까?” 하니, 이황이 사대부들을 응접하느라 그럴 틈이 없었다고 하자, 준경이 언짢아하며 말하기를, “지난 기묘년에도 선비의 풍조가 이리하였으나 그 가운데도 염소 몸에 호랑이 껍질을 뒤집어쓴 자가 있었으므로, 사화가 이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趙靜庵 이외에 그 누구도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李滉之入來, 士大夫朝夕候其門, 滉一皆禮接, 最後往謁浚慶, 浚慶曰: “入城已久, 何來見之晚?” 滉答以應接不暇, 浚慶不悅曰: “往在己卯, 士習如是, 其間亦有羊質虎皮, 禍由是媒, 趙靜庵外, 吾不取也.”] - 『宣祖修正實錄』 5年 7月 1日

『선조수정실록』과 『한국당쟁사』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방은이 기존 사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먼저 원문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당쟁사』의 집필과정에 대한 방은의 언급에서 보았듯이, 일차적으로 기억에 의존하여 사서의 내용을 인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인용할 때, 기존 사서의 비대화체 문장을 대화체로 바꾸어서 표현의 생동감을 살렸다는 점이다. 위의 예로든 『선조수정실록』과 『한국당쟁사』의 인용부분을 비교해 보면, 거의 소설체적 표현에 가깝게 원문을 변용하였음을 알 수 있

24) 성낙훈(1979), 170면.

다.²⁵⁾

한편 방은은 『한국당쟁사』에서 문장의 생동감을 살리고자 기존 사서의 원문의 문장을 축약, 변형하기도 하였으며, 때로 도치하여 인용하거나 각기 다른 시기의 문장을 하나의 인용문으로 묶어서 처리하기도 하였다. 방은의 이러한 서술기법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현장성을 생생하게 부각시켜 몰입도를 높여 주었다.

다음으로 『한국당쟁사』에 들어 있는 방은의 사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4. 『한국당쟁사』의 내용적 특징

앞서 임형택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 방은은 자신이 쓴 『한국당쟁사』에 자부심이 대단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자부심의 이면에는 자신만이 당파에서 자유롭고 한문에 탁월하다는 점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당쟁사』에는 방은의 조선 당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뚜렷하게 들어 있는데, 그 핵심은 도학과 군주, 그리고 당쟁의 순기능이었다.

㉠ 도학 : 조선 당쟁의 원인

▶ 유교 중에도 宋儒의 道學은 말폐에 이르러서는 배타적으로 되기 쉽고 현실보다 이론이 강한 것이다. 李朝에서 숭상한 유학은 주자학과 의 도학이다. 이는 정치를 위한 도학이 아니라 도학을 위한 정치였으며

25) 방은의 저술인 『불타전』과 『한국당쟁사』의 문투는 소설체에 가깝다. 그 원전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원전을 환골탈태시켜 소설체의 형식으로 석가의 전기와 조선 당쟁의 역사를 저술하였다. 제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평소 방은은 틈날 때마다 『태평광기』 같은 소설체 글을 탐독하였다고 한다. 어쩌면 그의 이러한 독서력이 저술의 형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본다.

로 오히려 도학의 정치화라고 불러 마땅할 것이다.²⁶⁾

▶ 이조에는 당쟁 때문에 정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쟁이 생긴 것이다. 이론을 좋아하고 현(賢)을 숭상하며 군자와 소인만을 분별하는 도학의 정치화는 그의 말류에는 필연적으로 당이 생기기 마련이다.²⁷⁾

▶ 배타적이요 명분적이요, 군자와 소인의 구별을 위주로 하는 도학 정치의 말폐와 삼사 제도의 이상한 발달에서 당쟁의 불이 치성하게 된 것이다.²⁸⁾

방은은 조선주자학의 연원인 송대 도학의 폐단이 조선 당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도학의 말폐인 배타성, 현실보다 이론을 중시하는 점을 조선의 士類가 답습하여 정치에 적용하였기에 후일 당쟁의 불이 타올랐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의 정치에 학문이 복속하는 데 비하여, 조선은 학문에 정치가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방은의 표현대로라면 ‘정치를 위한 도학이 아니라, 도학을 위한 정치’였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도학의 특징에 정치적 상황이 연계됨으로써 조선의 당쟁은 명분을 중시하고 군자와 소인, 즉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같은 편끼리 뭉치는 당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의 응집력은 더욱 강해져서 결국 조선이 망하는 그 날까지 이런 현상은 지속된 것이다. 학문에 정치가 종속되었기에, 그 추상적 이념에 매몰됨으로써 현실을 도외시되고 명분에 골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단순하게 명분을 중심으로 하는 학

26) 성낙훈 저, 이영호, 성창훈 교주(2021), 42면.

27) 성낙훈 저, 이영호, 성창훈 교주, 앞의 책, 48면.

28) 성낙훈 저, 이영호, 성창훈 교주, 앞의 책, 86면.

문적 논쟁으로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어 피바람 부는 당쟁으로 이어지게 한 근저에는 조선 군주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방은의 주장이다.

② 군주 : 조선 당쟁의 괴수

이조 역대에 士類를 많이 죽인 군주는 燕山, 中宗, 文定王后, 宣祖, 肅宗인데, 그중에도 숙종은 조정에 당쟁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광폭한 살육을 자행하고 張氏, 閔氏 두 왕비를 이리저리 바꾸는 틈새에 죄도 없는 此黨, 彼黨을 번갈아 죽였다.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숙종의 농락에 희생되고 만 것이다. 말년의 일만 보더라도 세자와 연잉군을 대립시켜 당쟁과 결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선조가 그 말년에 광해군과 永昌大君을 대립시켜 大北, 小北의 당쟁과 결부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과실이다. 더구나 선조가 7명 신하에게 준 밀서나 숙종이 이이명에게 密託한 것이 너무도 같은 拙惡한 수법이다. 黨人들은 선조나 숙종에게 속아서 막대한 화를 당하고 말았다. 당쟁에 있어서 죄의 괴수는 군주다.²⁹⁾

당쟁을 발생시킨 원인은 도학에 있고 이를 정치에 원용한 주체는 사람이지만, 당쟁을 상대당파에 대한 비판과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 목숨이 오고가는 참화가 이끌어낸 주체는 조선의 군주이다. 이것이 당쟁의 원인과 주체,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한 방은의 주장이다. 특히 燕山, 中宗, 文定王后, 宣祖, 肅宗이 대표적 군주인데, 여기에서도 선조와 숙종이 당쟁에 있어서 죄의 괴수였다고 보고 있다. 당쟁의 현장에 있었던 이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군주의 당쟁을 이용한 권력의 추구에 어육이 되었던 것이다. 방은은 이를 두고서 군주가 광폭한 살육을 자행하였다고까지 비

29) 성낙훈 저, 이영호, 성창훈 교주, 앞의 책, 295면.

판하였다.

③ 당쟁의 순기능 : 일당 독재의 비판

누구나 다 당쟁이 나라를 망쳤다고들 말하지만 피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정권의 쟁탈, 개인 간의 중상모략의 불순한 동기에 의해 당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당쟁 때문에 국가의 일이 그릇되기도 하였지만 여하간 격쟁은 300년의 國脈과 함께 이어온 것도 사실이다. 당쟁이 나라를 그르친 것이라기보다도 나라의 모든 결점이 당쟁을 통하여 표현되고 발로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말하면 당쟁이 아니더라도 나라가 잘 될 수 없을 만큼 나라 자체의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³⁰⁾

앞서 당쟁에 대한 방은의 주장을 보면, 일견 당쟁이 조선을 좀먹은 원흉인 것으로만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방은은 조선 정치의 흥망의 책임을 당쟁에게로만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방은은 당쟁이 비록 나라를 망치는 데 일조를 하였지만, 그것은 따지고 보면 당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라 자체의 결함이 당쟁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표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시의 조선은 당쟁이 아니더라도 잘 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마침 당쟁이라는 정쟁도구를 만나 상승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조선의 망국이 당쟁 때문이라는 친일적 사관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라고도 할 것이다. 방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쟁의 순기능을 인식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두고 임형택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0) 성낙훈 저, 이영호, 성장훈 교주, 앞의 책, 37면.

“당쟁 때문에 백성이 도탄에 빠진 것으로 세상이 알고 있는데 당쟁과 민생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 선생님의 지론이었다. 왜냐하면 당쟁은 어디까지나 관료층-사대부들 저희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순기능도 있었다고 보셨다. 당쟁이 갖는 상호 견제작용을 주목한 것이다. 반대 당파의 공격을 의식해서 벼슬을 하게 되면 자기 관리를 비교적 철저히 하기 마련이다. 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은 세도정치가 등장한 이후다. 권력의 독점으로 종래의 견제 작용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¹⁾

임형택 선생은 방은을 사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고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그 회고의 한 대목인데, 바로 방은의 당쟁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방은은 당쟁은 기본적으로 민생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당쟁으로 인해 조선이 피폐해지고 망하였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다. 한편 임형택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 방은은 당쟁의 순기능에도 주목한 것 같다. 상대 당을 인식하는 한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서 조선 관료 사회의 상호견제장치로써 당쟁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견제장치가 없어졌을 때, 즉 당쟁이 사라졌을 때 일당독재의 세도정치로 인한 부패의 만연이 이루어졌음은 방은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그 양상을 방은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갑오경장 후 軍國機務處가 대원군을 옹위하고 문벌,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불구하고 인재를 선발해 등용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당파에 의한 등용은 표면상 타파된 것 같았으나, 노론의 압도적인 주도권은 망국의 날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노론이 최후까지 그 관성을 유지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31) 임형택(2008), 66면.

병합할 당시 한국의 대신 중 農商務大臣 趙重應을 제하고 모두다 노론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또 병합과 동시에 관작에 제수된 76명의 귀족중 소론 7명, 복인 2명 외에는 전부가 노론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의 사정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³²⁾

『한국당쟁사』의 대미는 조선의 망국으로 끝맺음을 하는데, 여기서 방은은 조선망국의 가장 큰 책임을 상대 당이 사라진 가운데 정국의 전권을 휘두른 노론에게 돌리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할 당시 대신의 거의 전부가 노론이었으며, 병합 이후 일제의 관작을 받은 76명의 대신 중 노론이 67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나 망하고 난 뒤에도 노론 일색이었던 것이다. 이는 일견하기에 망국의 책임을 노론에게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당쟁이 사라진 정국에서 일당독재의 부작용을 언급하였다고 보여진다. 때문에 이러한 언급은 바로 조선의 당쟁이 그 역기능만큼이나 순기능도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5. 『한국당쟁사』의 당쟁관

위에서 우리는 방은의 한국당쟁사 서술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 가장 특별한 면모는 두 번째 든 조선 당쟁의 괴수를 군주로 지목한 점이다. 이는 기왕의 당쟁서와 비교하는데서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조선의 당쟁을 기록한 당쟁서 중에서 각 당파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한 당쟁서를 들라면, 南人の 입장에서 정치사를 정리한 南夏正

32) 성낙훈 저, 이영호, 성장훈 교주, 앞의 책, 363면.

(1678~1751)의 『桐巢漫錄』, 西人들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南紀濟의 『我我錄』, 少論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과 李建昌(1852~1898)의 『黨議通略』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당쟁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이 여럿 있지만, 그 중 당쟁 초기에 해당되는 1589년(己丑年) 10월에 일어난 기축옥사(정여립 모반사건)는 여러 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일단 규모면에서 압도적이다. 3년여에 걸쳐 이 옥사의 수괴로 지목된 鄭汝立(1546~1589)과 친교가 있었거나, 또는 동인(東人)이라는 이유로 처형된 자가 1,000여명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옥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정여립과 연관되어 처형당한 李潑(1544~1589)과 그의 가족에 관한 논란이었다.

정여립의 역모사건 당시, 동인의 거두였던 이발은 두 차례 모진 고문을 받고 杖殺되었다. 이발이 죽은 뒤 80여세의 노모와 어린 아들도 혹독한 형벌을 받고 모두 죽었다. 그런데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이발의 노모와 어린 아들이 참혹하게 죽은 사실은 이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노모와 어린아이의 죽음은 강상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에서 이를 훼손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이발과 그 가족의 참혹한 죽음을 주도하였는가? 그 주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에 각 당파에서는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극력 自黨을 변호하기에 이른다. 그 양상을 먼저 남인의 당쟁기록인 『동소만록』에서 시작하여 서인, 소론의 당쟁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남하정, 『동소만록』

이발의 어머니와 아들이 형장을 받고 죽은 때가 경인년(1590, 선조 23) 5월 4일이었다. 4월초에 서애가 이조판서가 되었는데 죽은 부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휴가를 내어 영남 고향에 내려갔다. (그 뒤) '6월 29일 정승에 임명되어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분

명히 실려있다. (그런데도) ‘같이 추국하기로 함께 약속했다’거나 ‘추국에 따라갔다가 함께 약속했다’는 등 자기 멋대로 무고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더욱이) 판서가 위관이 되는 것은 국조 이래 없었던 규정이다. 하물며 휴가를 빌어 고향에 있었는데 어떻게 함께 국문하고 함께 약속할 수 있었겠는가?³³⁾

■ 남기제, 『아아록』

이발과 이길이가 죽은 뒤, 그들의 82살 되는 어머니와 9살 어린 아이가 잡혀서 수감되니 이때가 庚寅年(1590, 선조 23) 12월이다. 임금이 국문을 명하자 조정의 신하들이 끝까지 법에 따라야 한다고 계문을 올려 옥중에 구류되었다. 辛卯年(1591, 선조 24) 5월이 되자 서애가 또 위관을 맡았다. 윤씨를 추문하다가 壓膝刑을 가하니, 그가 죽었다. 9살 어린 아이 또한 옥중에서 죽었다. 그 화 또한 참혹했다. 壬辰年(1592, 선조25)에 송강이 강계 유배지에서 풀려나와 관서 행재소에서 서애와 만났다. 송강이 서애를 책망하며 말하길 “대감이 일을 맡고서 어찌서 景涵(이발의 자)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죽였습니까?”라 하였다. 柳가 눈물을 흘리며 “대감이 있었어도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이발의 어머니와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송강이 강계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일어났음을 또 알 수 있겠다.³⁴⁾

■ 이견창, 『당의통략』

이발은 본래 무거운 명망이 있었다. 정철도 비록 속으로는 미워했지만 자주 임금께 말해서, “滌이 汝立과 사권 것은 정에 끌려서 그의 악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이오니 천하에 어찌 두 汝立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더욱 신문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澈은 휴가를 청해서 조정을 떠나고 柳成龍이 그에 대신해서 委官으로 있었는데, 마침 그때 滌이 여러번 형벌을 당한 끝에 죽고 말았다. 成龍은 滌과 함께 동인이었지만, 사이가 서로 좋지 못하고 또 임금의 명령이므로 감히 용서해 주지 못하고 곤장을 때려 죽였다.³⁵⁾

33) 정호훈(2016), 176면에서 재인용.

34) 정호훈, 앞의 논문, 179면에서 재인용.

35) 이견창 저, 이민수 역(1972), 25면.

1589년 기축옥사 때 李潑이 연루되었는데, 그의 노모와 어린 아들도 감옥에 갇혀 고문을 받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다. 80세가 넘는 노인과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죽은 비극적인 사건은, 후일 비극을 초래한 주체를 놓고 서로 다른 진술을 낳았다. 이 비극이 일어난 해는 경인년(1590, 선조23) 鄭澈이 위관이었을 때라는 진술과, 신묘년(1591, 선조24) 柳成龍이 위관이었을 때라는 진술로 엇갈렸다.³⁶⁾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정사인 『宣祖實錄』에서 당시 기사를 모두 누락시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경인년(선조23) 5월 기사와 신묘년 5월 기사에는 이발 노모의 사망과 관련된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 실상 『선조실록』에는 기축옥사에 대한 기록 자체가 거의 없다. 이 부분의 기록이 소략한 이유는 임진왜란에 있었다. 광해군이 즉위하여 선조 때의 실록을 편찬하려고 했을 때, 戰火로 사책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선조실록』을 보완 수정한 『宣祖修正實錄』이 나와서 기축옥사에 대한 기록을 첨부하였지만, 역시 당시 위관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³⁷⁾ 이미 이때는 위관을 놓고서 의견이 분분하였기에 정사에 한쪽의 견해를 넣기 어려워서 그러했으리라 보여진다.³⁸⁾

상황이 이러하니, 정철이 속한 서인과 유성룡이 속한 동인(남인)의 기록에도 큰 차이가 났다. 먼저 남인의 기록인 『동소만록』에서는 이 비극이 경인년(1590, 선조23) 5월 4일에 일어났다고 기술하면서, 이때 유성룡은 부인상을 당하여 고향인 영남에 가 있었는데 어떻게 국문에 참

36) 오항녕(2015), 274면 참조.

37) 오항녕, 앞의 논문, 259~260면 참조.

38) 『광해군일기』(중초본)에는 이 비극적 사건의 위관으로 유성룡을 지목하여 기술하였으나, 정초본에서는 이 기사를 삭제하였다. 이 또한 후대 위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기에 정초본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여진다.(이에 대해서는, 정호훈, 앞의 논문, 170면 참조)

가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반면 『아아록』에서는 이 비극이 일어난 시간을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신묘년(1591, 선조 24) 5월로 잡고 있다. 사건의 심의 자체는 『동소만록』의 기록처럼 경인년(1590, 선조 23)에 시작되었지만, 사건의 결론은 다음해인 신묘년에 이루어졌다고 기술하였다. 당연히 이발의 노모와 어린 아들이 고문 끝에 죽은 시점도 바로 이 시점으로 확정하였다. 이 때 정철은 유배를 가서 도성에 남아 있지 않았기에 당연히 위관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 결론에 확신을 주기 위하여, 정철과 유성룡의 대담을 기술하는 가운데 당시 위관이 유성룡이었음을 드러내 주었다.

요약하면, 남인들은 이 비극은 1590년에 일어났으며 당시 유성룡은 영남에 가 있었기에 이 일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인측에서는 1591년 유성룡이 위관이었을 때 이 옥사가 결론났기에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소론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에는 이 비극을 다룬 기왕의 자료들을 인용을 하였지만, 당시의 위관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세기 말엽에 쓰여진 이견창의 『당의통략』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인의 기록에 서 있다. 위의 인용에서 보다시피, 이 비극적 사건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예 당시 위관을 유성룡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발에 대한 정철과 유성룡의 태도를 기술하면서, 정철은 상대당인 이발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하고 유성룡은 자당인 이발과 사이가 좋지 않는 것으로 적어 놓았다. 기왕에 있었던 다양한 논의를 무시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서인측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렇게 보면, 정사인 실록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야사인 당쟁서에서 제각각의 논의를 펼친 셈이다. 그런데 남인의 기록에 비해, 서인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구한말에 쓰여진

소론의 당쟁서에서는 서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고, 이런 주장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³⁹⁾

이상 우리는 기축옥사에서 이발의 노모와 어린 아들의 죽음을 다루는 각 당파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당론서의 기술은 자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후대로 갈수록 당시 위관을 유성룡으로 지목하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어디까지나 이 잔혹한 사건의 책임은 유성룡이든 정철이든 당시 당파의 우두머리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방은의 기술과 평가는 사뭇 달랐다. 방은은 이발의 인물됨과 그 가족의 비극에 대하여, “이발은 孝友하고 淸名이 있는 사람이었다. 정여립과 친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역적과 공모하지 않은 것은 세상이 다 믿는 바였다. 더구나 80세의 노모와 8세의 어린 아들까지 매를 맞아죽었다.”⁴⁰⁾라고 기술하면서, 기축옥사 당시 그 참혹한 고문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또 이발의 어린 아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부친이 평소에 가르치기를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충성하라’ 하였으니, 역적의 일은 듣지 못했습니다.”

39) 예를 들어 현대 사학자 이덕일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럼 정여립 사건 당시 위관은 누구였던가? 유성룡이 위관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유성룡이 위관인 적이 없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문제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여립 반란 사건의 수사 기록인 「기축옥안(己丑獄案)」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이다. 이발이 죽을 당시에 위관이 누구인가 하는 논쟁은 훗날 서인과 남인 사이의 당론을 더욱 격화시켜 양자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더구나 사건 당시 이발의 팔순 노모와 열 살이 채 안 된 어린 아들까지도 국문을 받다가 죽음으로써 동인들은 이 사건으로 서인들, 특히 정철과 배후의 성헌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다. 정철이 이발을 죽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철은 상대방의 장점은 인정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물론 서인의 강경파인 정철은 이발을 미워했지만 그의 재능은 인정해 임금 선조에게, ‘이발이 정여립과 사귄 것은 정에 이끌려서 그가 악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하에 어찌 두 여립이 있겠습니까?’라고 변호해 그를 구원하려 하였다. (이덕일(2004), 100~102면)

40) 성낙훈 저, 이영호, 성창훈 교수, 앞의 책, 107면.

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도리어
“이런 말이 저놈의 집 아이한테서 나오다니……”
하고, 매를 쳐 죽이게 하였다.⁴¹⁾

방은은 종래 당쟁서에서 과연 누가 이 가족의 비극을 초래한 위관이
었는가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발의 인물됨과 그의 억
울함, 그리고 노모와 어린 아들의 죽음을 담담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때의 정황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당시 이발의 모친은 82세였는데
죽음에 이르러 형벌이 지나치다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발의 8세 어린 아
들은 고문의 가운데서도 선조를 향해 부친에게서 효와 충을 배웠지 반역
은 배우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 항변에 선조는 격분하여 그 어린아이
를 매로 때려죽였다. 방은은 당시의 이런 정황을 대화체로 표현하면서,
선조의 잔인함에 대하여 생생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때의 참화의 괴수는 정철이나 유성룡 같은 당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어둡고 잔인한 선조라고 주장하였다.⁴²⁾

방은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 정사인 실록이나 당쟁서는 물론, 현대에
쓰여진 당쟁관련 저술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과거에서 현재
에 이르기까지 당파의 우두머리나 그 당파에게 당쟁의 원인을 돌리는 서
술에서 탈피하여 그 최종적 책임의 소재로써 군주를 지목하였다. 하여
분명하게 ‘당쟁에 있어서 죄의 괴수는 군주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때문
에 이러한 군주를 묘사할 때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⁴³⁾

41) 성낙훈 저, 이영호, 성장훈 교주, 앞의 책, 114면.

42) 『한국당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113면. “이 역욕사건을 살펴보면, 당시
의 임금이었다던 선조의 혼암(昏暗)하고 잔폭(殘暴)한데 그 죄를 돌리지 아니할 수
없다.”

43) 예컨대 방은은 선조를 가리켜 ‘호색하는 군주’라고 하거나 ‘당쟁이 생긴 뒤 전제군주
가 자기 개인의 사적인 애증으로 대신들을 처리하려 하였다’고 비난하였다.(성낙훈
저, 이영호, 성장훈 교주, 앞의 책, 116면 참조)

이상으로 우리는 방은의 당쟁사 서술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종래 당론서와 비교하는 가운데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방은의 당쟁관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당쟁관과 차별되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다. 방은의 『한국당쟁사』에 들어있는 다양한 특징과 더불어 그의 이러한 당쟁관은 돋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은의 저술은 그의 주저인 『한국당쟁사』 이외에 유학 관련 글들이 있다. 이 또한 상당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필자는 방은의 조선유학 관련 저술을 모아 교주본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후일 『한국당쟁사』에 이어 그의 『한국유학사』도 복원되어 학계에 보고된다면, 한학을 근대 학문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를 한 방은의 학문의 전모가 온전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 「華嚴宗主映湖堂大宗師浮屠碑銘并序」⁴⁴⁾

내 공경히 영호 대사의 유문을 읽다가 「蓮潭大師碑陰記」(陰記, 비석 뒷면에 새긴 글)에 “蓮潭(1720~1799) 스님이 일찍이 雪坡(1707~1791) 노스님의 초상을 기리며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華嚴宗이 존망의 기로에 처했을 때, 우리 스님이 이 즈음에 나타나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화엄종의 十玄法門을 다시 활짝 열었으니, 그 누가 唐나라 淸涼國師 澄觀(738~839)의 재림이라고 하지 않으랴고 하였는데, 내 보기에 이 말은 연담 자신을 기리는 글로서 적합하다.”는 말에 이르렀다. 나는 문득 놀라며 말하기를, “내 보기에 영호 대사가 가히 이 말에 해당된다.”고 하

44) 이 비명의 번역과 원문은, 종길, 혜봉 공저(2016)의 말미에 실려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번역의 오류를 수정하고 원문을 표점교감하여 실었다. 특히 원문에 오자가 다소 있는데, 이 원문을 교감할 때 사용한 실물(고창 선운사 소재) 사진은 전 한국고전번역원 천길주 이사장께서 제공하였다.

였다.

또 영호 대사가 기록한 「先師雪乳大師行畧」을 읽다가, “선사가 일찍이 말하기를, ‘불경을 모두 꿰뚫어 큰 도에 들어가려고 하면, 쉼에서 나와 有로 들어가야 하니, 반드시 천하의 서적을 읽고 필히 천하의 학문을 살피며 반드시 천하의 선비를 사귀어야 할 것이다. 이런 뒤에야 다시 옛것을 음미하여 새로움을 도출해냄으로써, 가히 한 시대와 더불어 설 수 있고 부처의 가르침을 더불어 논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는 말에 이르러, 내가 문득 놀라며 말하기를, “내 보기에 영호 대사가 자신을 말한 것에 합치된다.”고 하였다.

또 「草广上人遺稿序」를 읽다가 “고금의 禪家 작품을 총괄하여 논해 보면 詩는 많으나 文이 부족하다. 조선조로 내려오면서 教風과 詞藻가 함께 날로 하강하여, 5백 년 동안에 시로써 이름을 날린 이가 몇 분에 불과하였다. 하물며 본체를 갖춘 대가를 어떻게 많이 볼 수 있겠는가! 근래 禪家 藝壇의 우두머리를 뽑음에 마침내 초엄상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니, 여기에 異論이 없을 것이다.”라는 글에 이르러, 내가 문득 놀라며 말하기를, “내 보기에 영호 대사가 자부하는 것에 합치된다.”고 하였다.

영호 대사는 雪坡, 白坡, 雪竇, 雪乳의 정맥을 이은 분으로 화엄의 종주이시다. 시문에 이르러서도 초엄과 더불어 禪家의 문단에서 나란히 일컬어졌다.

대사의 성은 密陽 朴氏요, 이름은 漢永이며, 아버지는 聖鏞, 어머니는 晉州 姜氏이다. 한말 경오년(1870) 8월 16일에 全州府 草浦面 鳥沙里에서 출생하였다. 집안은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고향에서 이름을 떨쳤다. 유년에 아버지를 여윈 뒤 무상을 깊이 생각하여 불가에 뜻을 두었으나, 차마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다.

19세에 威鳳寺에 갔다가 드디어 참된 보은을 하고자 결의하여 錦山の

長老에게 머리를 깎고 鼎鎬라는 법명을 받고, 幻應, 擎雲 등의 스님들에게서 수학하였다.

26세에 龜巖寺 雪乳 대사의 법통을 계승하니 법호는 映湖요, 石顛은 그의 아호이다. 이후 스승의 강론을 계승하였는데,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책을 읽어지고 모여든 팔도의 승려들이 백여 명에 이르러서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 절이 한낱 자그마한 사찰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나라에서 으뜸가는 이름을 차지하게 된 것은, 설파 선사 이래 백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문을 강론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山寺의 우러러보는 바가 된 것은, 대사가 여기에 머물면서 역대 스승의 아름다움 떨쳤기 때문이다.

30세에 석장을 짚고 여러 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화엄경』을 논하여 사람들을 탄복시키고 『禪門拈頌』을 설하여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大菴寺, 大源寺, 白羊寺, 靈源寺, 海印寺, 法住寺, 華嚴寺, 釋王寺, 乾鳳寺, 梵魚寺는 모두 대사께서 한 차례의 법회를 가진 곳이다. 39세에 韓龍雲(1879~1944), 琴巴(1868~1915) 스님 등과 함께 시운이 어지럽고 교풍이 쇠퇴함에 비분강개하여 북쪽으로 한양에 가서 불교 청년동맹을 결성하여 구제도를 개혁하고 維新을 도모하였다.

41세인 경술년(1910)에는 震應(1873~1941), 龍雲 선사 등과 더불어 臨濟宗院을 설치하여 친일적인 圓宗의 무리를 물리쳤다.

44세에는 海東佛報의 편집을 맡았고, 47세에는 宗立 中央學林의 강사가 되었으며, 57세 병인년(1925)에는 한성 동쪽의 大圓庵에 選佛場을 창건하여 禪을 논하고 教를 설하며 다시 20여 년을 수행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배운 자들 중에 안목을 얻은 이가 수없이 많았으니, 이는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逝多林의 아름다움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종정이 되어 승려들을 통솔하였으며, 동시에 불교전문학교의 교장이 되어 신

도들을 양성하였다.

64세는 멀리 중국 강남에 가서 머물다가 돌아왔으며, 76세에 강좌를 거두고 호남 內藏寺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무자년(1948) 2월 29일에 병 없이 입적하니 세수 79세요 法臘 61세였다.

스님은 계행이 엄정하고 시주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노래와 여색을 도외시하였으니, 『清涼國師傳』에서, “비구니 사찰의 먼지도 밟지 아니하고, 옆구리는 거사의 자리에 닿지 않았다.” 함은 곧 스님을 일컬음이다. 학문에 있어서도 教와 禪에 모두 뛰어나고 내외의 서적을 두루 섭렵하여 보지 않는 것이 없었다. 널리 보고 기억력이 좋아, 故事, 稗說, 僻書, 異聞에 이르기까지 묻는 대로 바로 대답하여 세상 선비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다. 시문에도 妙法을 얻어, 樓閣을 손끝으로 나타냄에 법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뛰어난 경관을 그려내었으니, 실로 속인의 언어나 할 수가 없었다.

간혹 학사나 문인들이 찾아오면 싫어하는 마음 없이 더불어 놀았으니, 李琦, 吳世昌, 金敦熙, 李道榮, 卞榮晚, 高義東, 鄭寅普, 崔南善 등이 당시 따르던 이들이었다. 저서로는 『石顛詩鈔』와 『石顛文鈔』가 있으며, 그 글에서 스스로에 대해 말하기를 “근대시로 禪境을 좇아 느낀 바대로 썼다.”고 하였고, 『石林草』 자서에서는 “성품이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여 석장을 끌고 우리나라 명소와 중국 남부의 浙江, 蘇州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들은 말을 기록하고 사물을 적은 초고가 마침내 약간의 권수가 되었다.”고 하였다.

대사가 입적한 뒤 18년이 지나, 여러 문인들이 도솔산 선운사에 부도를 세우고 나에게 銘을 짓기를 명하니, 나는 스승의 화엄종 문하생이었기에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명을 쓰노라.

三學에 통달하여 사부대중을 인도하니
火蓮이 映湖에 의탁해 피어나네.
글을 지어 먼저 바치니
불조의 玄談이지 葫蘆를 그린 것이 아니로다.
이곳을 지나는 이는 마땅히 頂禮하라
명산을 진압하는 부도가 있도다.

불기 2992년 을사년(1965) 12월 8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및 문하생, 昌寧 成樂熏이 삼가 짓다

華嚴宗主 映湖堂大宗師 浮屠碑銘并序

予伏讀映湖大師遺文，至蓮潭大師碑陰記有云：“蓮潭，曾頌雪坡老眞曰：‘東國華嚴 若存若亡 我師問生，整其頹網，十玄法門，重得恢張，其誰不曰，再來清涼。’以吾觀之，亦合蓮老之自頌也已。”輒不覺瞿然曰：“以吾觀之，湖老亦可當此語也已。”

又讀至先師雪乳大師行畧有云：“先師嘗曰：‘惟鑽極內典，欲踏大方，宜乎出空入有，必讀天下書，必窺天下學，必交天下士，然後復食古化新，可以並立於一世，可以與論佛乘矣。’”輒不覺瞿然曰：“以吾觀之，亦合湖老之自道也已。”

又讀至草广上人遺稿序有云：“統論古今禪家之作品，詩有餘而文不足，降及漢陽之代，教風與詞藻，俱漸日下。五百年間，以詩名者，不過數人，況復多見具體大家哉！擬擇近古禪家藝壇主盟者，竟歸草广上人，無異論矣。”輒不覺瞿然曰：“以吾觀之，亦合湖老之自居也已。”

映湖大師，乃雪坡，白坡，雪竇，雪乳之正脉也，華嚴之宗，有所自來矣。至於詩文，可以與草廡，並峙禪家之文苑矣。

師姓密陽朴氏，名漢永，考聖鏞，妣晉州姜氏，韓季庚午八月，十六日，誕于全州府，草浦面，烏沙里。家世爲農，幼而聽慧，聲振鄉邑。髫而失怙，痛念無常，志在方外，未忍離母。年十九，參威鳳寺，遂決以眞報恩，依錦山長老剃染，法名鼎鎬，受學於幻應，擎雲諸尊宿。二十六，嗣法於龜巖寺雪乳師，法號映湖，石顛其雅號。

仍而繼講，名播遠邇，八路雲衲，負笈者，數至百餘，得希有大盛會焉。是寺不過一小刹，而名冠國中者，自雪老以來，百數年間，講學繼擅。爲衆山所歸仰者，師于是克闡前微焉。

三十轉錫於諸山，論雜華解人頤，說拈頌，刮人眼。大茆，大源，白羊，靈源，海印，法住，華嚴，釋王，乾鳳，梵魚，皆師之一會處也。三十九，與龍雲琴巴等，感時運遷滯，慨教風陵夷，北遊漢京，結佛教青總，圖革舊而維新。

四十一庚戌，與震應龍雲諸師，設臨濟宗院，攻斥所謂圓宗附日之徒。四十四任海東佛報編輯，四十七爲宗立中央學林講師，五十七丙寅，勅選佛場於城東大圓菴，談禪演教，復修二十冬夏。通方學人之得眼目者，計至百千，比作逝多林嘉焉焉。於此中間，爲宗正，統攝僧尼，兼佛專校長，培養信檀。六十四，遠遊中國江南而歸。七十六，輟講休老於湖南內藏寺。至戊子二月二十九日，無疾示寂，世壽七十九，戒臘六十一。

師戒行嚴淨，不受檀施，度外聲色，「清涼國師傳」所稱，足不履尼寺之塵，脇不着居士之席者，師之謂矣。其於學也，兼精教禪，通涉內外，無所不窺。覽博記強，至於故事稗說僻書異聞，隨問如響，使世儒瞠目。爲詩文如其所得法，樓閣現於指端，不拘於規制，而儼一奇觀，要之非俗人語也。間有學士文人來，就不厭與之遊，李琦，吳世昌，金敦熙，李道榮，卞榮晚，

高義東, 鄭寅普, 崔南善, 皆時月相從者也. 所著有『石顛詩鈔』, 『石顛文鈔』, 鈔中隨筆自引曰: “隨近代詩禪境, 感而筆之者也.” 石林草自敘曰: “性多登臨之癖, 曳一枝錫, 而數周東海名區, 及夫南中浙蘇, 紀言紀物草, 遂若干云.” 師寂後十八年, 諸門人樹浮屠於兜率山禪雲寺, 命樂熏爲銘. 樂熏吾師之華嚴門生也, 辭不獲, 謹爲之銘曰:

通三學導四衆, 火蓮托生映湖, 得句先呈, 佛祖談玄, 非畫葫蘆. 過此者宜頂禮, 鎮名山有浮屠.

佛紀 二千九百九十二年, 乙巳, 臘八日.

成均館大學校 教授 門生 昌寧 成樂熏 謹撰.

〈참고문헌〉

- 박용운(2008), 「방은 선생님을 추모하며」, 『韓國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 방은기념사업회 편(1979), 『(방은 성낙훈선생문충) 한국사상논고』, 동화출판공사.
- 성낙훈 저, 이영호, 성창훈 교주(2021), 『한국당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成樂熏(1947), 『佛陀傳』, 護國譯經院.
- 성유경(2008), 「아버님에 대한 추모의 글」, 『韓國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 염중섭(2020), 「한암 중원의 선불교와 교육사상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 오향녕(2015), 「기축옥사의 비극적 사건과 기억들」, 『한국인물사연구』 제23호, 한국인물사연구회.
- 유풍연(2008), 「放隱 成樂熏 先生님과과의 因緣」, 『韓國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 이건창 저, 이민수 역(1972), 『당의통략』, 을유문화사.
- 이계황(2011), 「초기 고전국역의 낙수(落穗)」, 『고전칼럼』, 한국고전번역원.
- 이덕일(2004),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석필.
- 이성무(2008), 「放隱 成樂熏 선생과의 인연」, 『韓國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 임형택(2008), 「나의 방은 선생 회상기」, 『韓國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 정호훈(2016), 「조선후기 당쟁과 기록의 정치성」, 『한국사학사학보』 33, 한국사학사학회.
- 종길, 혜봉 공저(2016), 『석전 박한영』, 신아출판사.
- 허권수(2012), 「벽사 선생과의 대담」, 『연민학지』 17집, 연민학회.

Description On Chinese Studies of Bang Eun(放隱) Sung Nakhon(成樂熏) and a History of Party Strifes in Joseon Period

Lee, Young ho*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modern and pre-modern eras of Korea, some of the traditional scholars of the Chinese classics entered the academic system and played a role in transforming Chinese studies into modern studies. Among them, the representative scholar of the Chinese classics is Sung Nakhon.

Sung Nakhon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translation of Confucian and Buddhist texts and teaching Chinese Studies. Although he published many translations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both, h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nd educated many talented people in Korean Studies through teaching at a university or privately giving classes in Chinese characters.

In the academic field, he showed a unique view of history based on a wide range of references in the description of party strifes in Joseon period. While the existing books of party strifes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by focusing on partisan views, Sung Nakhon holds kings responsible because they coordinate all of this aspects. If related discussion is further supplemented through his writings about confucianism in the future, that will be a valuable resource for korean studies.

*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E-mail: lyh6896@skku.edu

Key Words

Chinese Studies,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History of Party Strifes in Joseon Period, Korean Studies

논문접수일: 2022. 1. 21, 심사완료일: 2022. 6. 28, 게재확정일: 2022. 6. 30

